

**인권주일
설 교**

주께서 구하시는 것

<미가6:8>



손 신 일 목사 (니시노미야교회)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 따르면, 이집트로 팔려간 후 요셉은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섬기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증상모략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그녀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도다” (창39:14) 이 말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방인, 외국인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대국 이집트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인에게 지금 말하는 <인권>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고대 이집트에서 끝나지 않고 현대의 우리 안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요셉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증폭되어 때로는 폭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유럽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체코 땅은 지금은 서슬라브계 체코인의 나라가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이 지나간 땅입니다. 중세 시대부터는 신성로마제국 안의 유력한 왕국으로서 독일 사람들과 공존했고, 도시에는 유대인 거리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에 편입된 후에는 체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슬라브 민족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했지만, 20년 후에 나치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2차 대전 후 다시 독립을 찾아 사회주의 시대를 거쳐 민주화 이후 슬로바키아와 평화적으로 분리됩니다. 그 사이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전후에는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는다’ 하는 다수자의 편견에 의해 쫓겨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겨진 이방인으로는 롬(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시선이 전반적으로 냉담한 것은 체코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아시아인으로서 체코에 살면서 이방인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느낀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체코에는 근년에 베트남에서 온 이민자들이 늘어나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이방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날이 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방인의 인권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에 대해 항의를 표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일반 신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임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성경 속에 현대적 의미의 <인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대의 인권 의식은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헌법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가르침이 인권 존중과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기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의 인권의 존중으로 우리를 이끄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인권의 존중은 일본 국민에 한정된 것이지, 외국인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이방인이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맙니다. 자국민과 외국인, 자기네와 남이라는 구별이 있는 한 편견과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구별,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3:28)

주님의 교회에서야말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체코 교회와 독일 교회는 민족간의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교회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증거하기 위한 노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뿐만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 믿으면서, 성경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 저절로 서로의 인권,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韓日对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对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韓日对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 価格：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주부지방회

한일교회 청소년교류 투어 한신교회 청소년 맞아 역사를 공유

7월29일-8월1일, 한국의 한신교회로부터 22명의 청소년과 신도, 교역자를 맞이하여 총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바라보며 -너와 함께-” 라는 주제로 한일청소년교류 투어가 중부지방과 교토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로 8번째 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그램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시되었다. 올해 투어는 일본기독교단과 일본그리스도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 그리고 교역자들이 참가하였으며, 교류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교토에서 필드워크를 실시하여 일본내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를 배우거나, 차별적인 역사 가운데에서도 힘차게 살아온 우토로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첫째 날에는 KCCJ나고야교회에서 리셉션과 개회예배가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도시사대학 견학과 우토로 지구 견학이라는 필드워크가 있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오전중에 교토 시내, 오후에는 보리스 기념관을 방문하여 일본 선교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밤에는 일본기독교단 나고야중앙교회에서 한일합동 수요일예배 등이 진행되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를 통해 한일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보고 : 김성연목사)



전국여성회

노토반도지진 식량지원 최다지진국의 '지원의 방법' 모색

지진 재해로부터 반년이 지난 7월 중순 무렵, 이시바시 총무가 ‘노토반도 지진재해 지원활동’의 이야기를 꺼내, 2주 정도에 이시바시 마리에 총무, 양육자 서부여성회회장, 송남현목사, 임혜영사모(오사카 제일교회), 강지선 선교사회국장으로 시찰팀을 꾸려서 이시카와현 수주시에 가게 되었다. 관계자분의 예정과 재해 지원봉사 차량의 고속도로 무료 조치의 기간을 이용하기 위해, 서둘러 지원 식량 80 봉투(쌀 2킬로·레토르트 식품 등)를 준비해, 2박 3일(8/5-7)의 여정으로 감행했다.

8월 6일(화)에 약 2시간에 걸쳐 지원 식량을 배포했는데, 가설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입소문으로 1시간이나 빨리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말을 나눈 여성분은, ‘지진으로 집이 전파되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남편과 함께 가설에 있다. 전에는 차도 있어서 타고 다녔는데, 가나자와에 사는 딸이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 하고, 나이드 먹고 여기서 서두르지 않으며 살아가려 한다’고 자신을 위로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도 그 눈에는 눈물이 어렸다. 일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긴 허탈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무력감에서 넘쳐난 영혼의 아픔을 본 듯도 싶었다.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진에 의한 재해가 어느 나라보다 자주 일어나는 이 일본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능한 ‘지원의 방법’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 식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총회 사회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보고:강지선 선교사회국장)



특별기고

캐나다 청년 하기수양회에 참가하여



전 지 호 (나고야교회)

나는 이번에 매우 고맙게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5일간의 사전 프로그램과 5일간의 전국 이벤트에 캐나다장로교회(PCC)로부터 초대를 받고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멤버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참가 멤버는 일본에서 나를 포함해 2명, 대만에서도 2명,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에서는 4명의 총 12명이었다.

사전 프로그램에서는 우선 세계 각국에서 참가를 하고, 다양한 출자를 가진 이들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교류를 하는 것으로 사이를 깊게 할 수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2명씩 짝이 되어 각 예배의 리드를 맡아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예배 형태 등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은 우리의 사전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기도 했고, 나중에 행해지는 전국 이벤트 「대담한 희망」에서 우리가 실시하게 되어 있던 워크숍의 준비에 충당되었다.

이 전국 이벤트에서는 각자가 등록을 한 워크숍에 참가를 하고, 이미지적으로는 큰 문화제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워크숍의 내용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LGBTQ,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지만 캐나다나 대만에서는 자주 논의되고 있는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것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우리가 맡고 있던 워크숍은 1시간 반이며, 현재 자신들의 교회나 세계에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젊은이와 청소년 교회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 2명과 한국 4명이 이 발표를 하게 되었다. 우리 워크숍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사람이 3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매우 긴장하고 있었지만 사전 프로그램 중에서 깊은 토론이나 논의를 하고, 몇 번이나 연습을 해서 무사히 좋은 워크숍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참가하고 있던 현지 캐나다 사람들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교회로서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해 주며, 질의응답 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고, 캐나다의 현상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매우 인상에 남아있다.

다른 워크숍이나 전체 예배 등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에는 없었던 스타일의 것을 많이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일본이든 캐나다이든, 같은 신앙이 근거에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단히 훌륭하고 열매가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동시에 사전 프로그램을 1년 이상 계획해 주신 캐나다연합교회(UCC)의 Sarah와 Beth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서포트해 준 캐나다장로교회의 Lily Ko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싶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 100주년을 기억하며 ① 글렌 데이비스 목사 인터뷰

2027년에 캐나다장로교회가 재일동포 선교를 시작하여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023년10월 제57회 정기총회에서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캐나다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모아서 자료집을 만드는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하신 고령의 글렌 데이비스목사를 맞이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2024년8월10일, KCC) 그 내용을 9월호,10월호에 나누어서 게재하겠습니다.



1. 기억을 더듬어보기 위해

①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까? 가족 및 형제는 몇 명입니까?

캐나다의 가장 동쪽에 있는 노바스코샤 (Nova Scotia) 주에서 태어나 17살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3명의 형과 여동생 1명의 총 5남매입니다. 여동생은 지금도 캐나다에 있습니다.

②어린 시절의 특별한 추억이 있나요?

제가 5살 때 얘기입니다. 집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미라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돌 던지기를 자주 하며 놀았어요. 어느날 돌맹이를 던지며 놀다가 거기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처에 살던 분이 창문을 통해 제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서둘러 와서 저를 구해 주셨어요. 그 일이 왜 소중한 추억이냐면, 제가 16살 때 왜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구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저의 생명을 구해 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③ 헌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도우셔야 했기 때문에 자식 중 한 명이라도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④ 어느 신학교에 입학하셨나요?

몬트리올 맥길대학교에 위치한 장로교 대학(The Presbyterian College)이라는 신학교입니다. 그 학교 기숙사



총회사무국에서 회담. 동석한 Bruce McAndless-David 목사는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글렌·데이비스선교사의 아들

에서 만난 분이 김덕성목사님입니다. 몇 년 후 황의생목사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2. 해외(재일동포) 선교에 대하여

①해외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언제쯤이었나요?

1957년, 아직 학생이었을 때 미국에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기독교학생회(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선교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대회에서 해외선교에 대한 도전과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 대회에서 조이스와 만나 1962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만난 인연으로 우리 부부는 해외에서 선교하고 싶다는 생각에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선교사로 파송될 줄 알았는데, 선교부로부터 돌아온 답장은 일본에 있는 재일대한기독교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그리스도)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나를 위해 일본에 가지 않느냐?' 그날 아침, 이 사실을 Joyce에게 말했더니 '갑시다' 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②한국어와 일본어는 어디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배우셨나요?

당시 선교사들이 많이 다니던 시부야에 있는 어학원에 1년 반 정도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그 후 서울에 가서 연세대 어학당에서 9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기록/정리: 정시온목사)

(이 다음은 계속해서 10월호에 게재합니다.)



오사카 KCC 에서의 인터뷰를 마치고



총회사무국을 방문했을 때의 총회위원·사무국직원과 점심식사회

관동대지진 제노사이드 101년 추모에의 염원

김성제 (증정총회장, 前 NCCJ 총간사)

1923년 9월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제노사이드(대학살)의 역사 연구자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이 역사 문제를 국가 책임과 민중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1923년 12월 14일과 15일, 대일본제국 중의원 본회의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田淵豊、永井柳太郎)이 내무성 경호국장이 보낸 유언비어성 전보를 들고 당시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権兵衛) 총리에게 대학살의 국가 책임을 추궁했다. 야마모토 총리가 “숙고하여 다음에 답변하겠다”, “정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며,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이후 국가적 책임을 포기한 채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해 제노사이드 100년을 맞아 야당 의원들의 반복된 국회 질의에 대해 정부 측은 “정부로서는 학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것이 근현대 100년에 걸친 일본의 무책임한 국가의 현실이다.

국가책임과 국민책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일본 헌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민주주의 국가로서 은폐의 어둠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묻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여 응답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일으킨 대량학살에 대한 무책임이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주권과 참정권을 가진 대다수 민중도 이를 추궁하지 않고 침묵하는 공범관계의 100년 역사를 새겨왔다고 할 수 있다.

관동대지진 대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은 헤이트 스피치와 폭력을 비롯한 많은 폐단을 초래할 것이며, 그렇다면 세계 시민들로부터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올해 101년째인 9월에도 추도 집회와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기독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서 있는 기독교회는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야마다(山田) 교수가 질문한 민중적 책임이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의미한다.

NCC의 3개 위원회는 가톨릭과 각 교단 교회에 제노사이드 100년 추모집회를 요청하여 지난 2023년 2월 1일 추모 실행 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 3일(일) 저녁에 KCCJ 동경교회에서 추모집회를 개최했다. NCC가 관동대지진 대학살 추모에 집착하는 데는 한 가지 깊은 이유가 있다. NCC의 전전(戰前) 전신(前身) 조직은 일본기독교연맹으로, 그 대학살이 일어난 지 3개월 후인 11월에 발족했다. 그러나 그 창립총회 기록에는 복음서의 ‘회칠한 무덤’(마태복음 23:27), 그리고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는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떠올리게 하듯, 6천 명이 넘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추모의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았다. 관동대지진 대학살 추모예배는 단순히 억압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가슴 아파하고 기억하는 시간에 그치

지 않는다. 도대체 왜 당시 일본의 기독교회는 1873년 ‘기독교 금지령’이 폐지된 이후, 국가적 우상숭배를 강요당하는 가운데 학살의 광기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을 숨겨주지도 못하고, 추모하는 것조차 포기하면서 복음 신앙의 본질과 윤리에서 벗어나 무엇을 잃어가는 길을 걸어왔을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그 학살의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것은 학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의 입장에서 서서 근현대 일본 기독교 역사의 의미를 십자가의 주님 앞에 돌아와서 깊이 다시 한 번 되묻는 시간이라는 것이 작년의 추도 문에서 표명되었다.



KCCJ는 현재까지 일본의 두 교단과 화해의 선교협정을 1984년과 1997년에 체결한 바 있다. 그 협약에 근거한 선교협약에서 관동대지진 제노사이드는 어떻게 논의되고, 마주하고, 공동의 추모의 활동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가? 나는 나 자신의 반성을 담아 되돌아본다.

나는 KCCJ에서 목회할 때, 在日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 후, 한국 출신인 분들이 “나는 在日이 아니니까요”라는 대답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다. KCCJ와 일본 교회와의 교류의 장에서 설교를 해주시는 일본 목사님의 메시지 첫머리에 과거 역사에 대한 사과의 한 마디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상상해보시라. 그 사과의 말을 받는 쪽인 KCCJ의 교역자와 신도들이 그 사과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깊고 긴 在日의 역사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모르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며, 엇갈린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KCCJ의 신학적 존재 이유가 걸린, 잃어서는 안 될 ‘소금의 맛’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는 자신의 영적 안일을 채우는데 그치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 된 교회이며, KCCJ는 그 주님께서 그 관동대지진 대학살의 현장을 자신의 골고다 언덕으로 삼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신음하시며 재일조선인의 고난의 역사를 함께 하신 교회이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전쟁 전 1940년 在日조선기독교교회가 폐쇄되어 이 땅에서 없어진 것을 전후 KCCJ의 부흥을 이끌어 주신 교회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신이 선택한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일본 출신이든 한국 출신이든, 체류자의 길에서 발견되고, 선택되고, 인도되어 KCCJ에서 하나님의 체류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신앙고백 위에서 있다.

이 나라와 사회에 다시는 이런 폭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대와 우애의 방과제를 쌓아가는 선교적 책임을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KCCJ가 소중히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東京教会牧師請聘案内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자격 : 재일대한기독교회 소속 목사
- 제출서류(1차) : 이력서1부
- 마감 : 2024년9월30일
- 제출처 : kccj.tokyochurch@gmail.com
- 문의처 : 090-4098-1365(당회서기)

讚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発行されています。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